

## 브라보 - 50대 남성 맞춤형도집회

첫째날 메시지 " 남자의 용기 "

둘째날 메시지 " 남자의 성공 "

셋째날 메시지 " 남자의 사랑 "

### 첫째날 메시지 " 남자의 용기 "

여호수아 14장 9~12절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을 무찌르는 용기, 자신 앞에 정직한 용기,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

가장 중요한 용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50세가 된 사람들은 죽는 것 빼고는 거의 다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살이가 신기한 것이 없고 흥분되고 즐겁던 일들도 마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고 건강을 잃어 이제 남은 것은 허무함뿐입니다.

### 역사의 주인공 50대

브라보 모임을 준비하면서 50대 남성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친구들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부를 이루고 초석을 만들었던 50대가 사각지대에서 푸대접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곳에서도 50대가 주축을 이루어야 건강합니다.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비전이 있고 영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끌고 가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얼마전에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40~50대 사람들이 없고 모두 60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40~50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건강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가정문제일 것입니다. 퇴직으로 가정에 돌아온 남편에게 제일 불편한 사람은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장노릇 하지 않다가 가장노릇하려니 부인도 자녀도 힘들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을 잃은 정체감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죽은 후에 갈곳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갈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이 없는 사람은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좌절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섭리가 있습니다. 재수가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섭리고 계획입니다.

## 영원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행복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시련과 역경은 심판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고 실패도,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고 고통을 지拂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십시오. 한쪽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닫힌 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문을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해본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기를 많이 치고 또 당해왔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정직이라는 말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적당히 말을 가공하고 붙여서 개념을 바꿔서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가능하겠으나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잘 안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기자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퇴직했는지 자영업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앞에 갈 때까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내를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잃으면 인생의 후반을 망칩니다. 아내를 잃는 이유는 아내에게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정성을 들여야 하고 사랑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집안에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할수 없습니다.

자녀를 잃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위해 눈물흘리며 초청하는 딸과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저 아들과 딸에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나 자녀, 직장의 문제는 이 지상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여러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을 무찌르는 용기, 자기 자신앞에 정직한 용기, 또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도 큰 용기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용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도 많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 엄청

난 용기입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 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부했기 때문이며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저와 함께 멋지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이 삶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남자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 둘째날 메시지 " 남자의 성공 "

### 창세기 32장 28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보석도,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도 이것보다 못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을 들여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천신만고 끝에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성공도 있지만 자고 깬더니 벼락부자가 된 것 같이 우연한 성공도 있습니다.

### 성공 뒤의 고독

일반적으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 우월감, 승리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겼다. 나는 최고다. 이 분야에서 나 이상 존재는 없다.’ 이런 동물적인 본능이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성공이라는 이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생을 불살라보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 야망, 열정은 어느덧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뒤편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왜 일까요? 성공은 피라미드 같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갈수록 내 동료, 친구들은 점점 다 사라집니다. 내 친구는 경쟁자가 되고 공격자가 됩니다. 정상, 성공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쫓기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의 반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접어버렸습니다. 실망이 깊은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 우쭐하고 실패할 때 움츠러드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외롭고 실패해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 올바른 기준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너무 외형적인데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명성을 얻는다든지,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농구를 즐기면 되는데 마이클 조던이 안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명예, 부, 건강, 영향력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정직하고 의미 있게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곡됩니다. 진정한 가치기준은 외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데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기준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소유하고 누렸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기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이것이 진짜 일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사장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올바른 두 번째 기준은 ‘나 혼자만의 성공인가, 공동체의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 혼자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공은 아내의 성공이고 자녀의 성공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성공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은 이기적인 성공입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내 행복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는데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될 때 내가 행복합니다. 비록 내가 불행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개인적인 것으로 추구하려 합니다. 행복을 외적인 것으로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얻고도 잃어버리고 행복하다 말하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만나자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상 녹음을 한 후 이어령 교수님 가족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해합니다. 부활이 이해 안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이해하려면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기도해주십시오”라며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어령 교수도, 가족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위대한 복입니다. 어떤 보석도,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도 이것보다 못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잠을 못자던 50대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못만나고 이제야 돌아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브라보 집회에 모인 여러분께 너무 늦게 예수님 믿지 말고 지금 믿으라고 말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결혼해 자식을 만납니다. 선후배,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만남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열망, 갈망,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나이까지 혼자 살아왔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싶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남자의 용기'를 주제로 가장 위대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그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셋째날 메시지 " 남자의 사랑 "

### 에베소서 5장 25~28절

남자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결혼초기에 경험한 제 사랑이야기입니다. 냉면을 좋아하는 저는 제 아내를 데리고 냉면먹으러 갑니다. 샐러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제 아내는 냉면이나 설렁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원하는 사랑을 강요한 것입니다. 제가 돈도 썼고 시간도 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강요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남자의 용기'와 '남자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보다 큰 용기는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보다 큰 성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행복해야 할 곳, 가정

오늘은 '남자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동안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시집살이 하느라 남편 몰래 눈물 흘리고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먹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때로는 시집살이로 말 못하는 감정의 상처가 있으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아무리 좋고 성공했어도 돌아갈 곳

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맞이할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친구여야 하고 동역자여야 합니다. 파트너라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퇴출을 당했거나 암에 걸렸거나 위기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보상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면서 아이들은 아내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대화하기 어려운 때가 50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50대 남성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것을 이런 말로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세가지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가 믿을 수 없고 여자가 하는 말을 남자가 믿을수 없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부란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살면 살수록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려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는 아내, 부인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떤 불가능도 이겨냅니다.

#### 믿음, 소망, 사랑

사탄의 첫번째 공격목표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부부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첩경은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두번째는 ‘꿈’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과거가 있을 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밤이 새도록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 하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꿀 때 부에게는 생기가 돕니다.

세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정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특이한 점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과거를 따지고 말할 것 같으면 지적할 것이 너무도 많고 용서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가짜 사랑에 절망할 때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촛불사랑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태양과 같아서 불어도 꺼지지 않고 막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을 만드는 사랑,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은 사랑이고 내 사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개념을 바꿀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무조건, 희생, 기다리는 하나님사랑

사랑의 새로운 차원에 입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이 기다리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개념에 혁명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남자의 위대한 능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관계에 사랑의 기적과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내를 조건없이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예전처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면 또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변하고 내 파트너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대 여러분의 인생은 '브라보'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20~30년이 지났을 것이지만 이제 새로운 브라보가 시작되고 사랑과 비전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